



원불교 남원지구, 대각개교절 쌀 나눔 행사 가져

남원시는 원불교 남원교당이 원기 108년 4월 28일 '원불교 열린 날(대각개교절)'을 맞아 쌀 10kg 188포대 (한가액 500만원)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원불교 남원교당은 은혜 쌀 나눔 행사를 5년째 추진하여 남원을 포근하고 훈훈하게 만들고 있으며, 아울러 대각 떡 나눔도 같이 진행하여 모식떡 540세트를 학교, 우체국, 농업 협회 교회 주변 시설 등 다양한 곳에 전했으며, 남원시는 교당의 뜻에 따라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20가정과 사회복지시설 30여 곳에 쌀을 전달했다.

한편 차미와 여성가족과장은 원불교 열린 날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해마다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남원교당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은혜가 끝고루 미치지 못하도록 어려운 곳에 잘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생태원, 멸종위기 모래주사 섬진강 방류

국립생태원이 멸종위기 1급 담수어류인 모래주사 복원을 위한 방류행사를 최근 섬진강 상류인 임실군 신평면 일원에서 실시했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복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종합계획(2018년~2027년)에 따라 진행 중인 멸종위기 담수어류 생태특성 및 보전방안 연구 일환으로 진행됐다.

전북지방환경청, 임실군 신평초등학교 학생·교사 등 약 40명이 참석하여 인공 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모래주사 준성체 약 200개체를 임실군 신평면 일원 섬진강 상류에 방류했다.

심 민 군수는 "멸종위기 1급인 모래주사가 방류된 임실군 섬진강 유역의 생태적 의미를 되새기고, 멸종위기 담수어류 복원과 서식지 보전을 위해 더욱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전종영 기자



비전대 기독교청소년협·전주시연합회, 협력 체결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직무대행 우병훈)는 전주비전대 통합 멀티미디어컨퍼런스룸에서 기독교청소년협회·전주시기독교교연회와 상호협력MOU를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 전주비전대측에서는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 김미선 교목실장, 김영선 교육, 홍영민 객원교수 등이 참석하고, 기독교청소년협회측에서는 정진해 이사장, 정용일 이사, 양탁연 이사 등이 그리고 전주시기독교교연회에서는 김복철 회장, 손문섭 상임총무 등 3개 기관에서 20여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기독교 정신 구현을 위한 청소년 선교 지원 사업 구축,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 발전과 우호증진, △기독교 정신 구현을 위한 선교 지원 사업, △청소년 신앙 캠프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청소년 지역사회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지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기회 제공 지원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우병훈 총장 직무대행은 양 기관장들에게 협약체결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하며 "전라북도 기관과 연합을 통한 신동아 학원 복음화와 전주비전대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사업 개발로 인한 상호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자연과 공존

전북교육청, 올해 3개 학교에 'NH교실숲 조성' 추진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올해도 NH농협은행 전북본부와 함께 ESG 사회공헌 활동인 '교실숲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2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지난해 10월 '교실숲 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개 학교에 교실 숲을 조성했다.

올해는 5~7호까지 3개 학교에서 교실 숲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대상학교는 탄소중립 실천학교 1~2년차인 전주남초등학교, 전주삼남초등학교, 원광중학교 등 3교다. 3개 학교 46개 학급이 참여해 생태교육 및 교실숲을 조성한다.

'교실숲 만들기' 사업은 생태수업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멸종위기 식물 분갈이 키트를 활용해 자신만의 반려식물을 심고 생육활동을 스스로 담당함으로써 자연과 교감하며 가까워지는 법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교실 안의 미세먼지 차단 및 공기정화 기능의 식물 조성으로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 효과도 제공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의 환경교육을 지원



하고 생태공간 확대 조성을 위해 ESG경영 지향 기관들과의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발굴하고자 한다"며 "멸종위기 식물교육과 반려식물 키우기를 통해 자연과 생명을 좀 더 가까이 만나고, 자연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돼 있고 함께 공존해야 함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교직원수련원, 기후변화주간 '반려해변' 환경정화 활동 펼쳐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은 지난날 28일 변산해수욕장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와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 등 반려해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반려해변은 기업·단체 등이 특정 해변 및 연안을 반려동물처럼 가꾸고 관리하는 환경관리 프로그램으로 2020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2023년에 전국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교직원 수련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지구살리기 위해 적극 참여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접한 변산해수욕장을 부안군청에 '반려해변'으로 신청, 기후변화주간인 28일을 시작으로 지역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속적인 해양환경 정화 및 캠페인 활동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반려해변으로 인양 후 실시하는 첫 활동에서 직원과 이용객은 해양보호 캠페인을 펼쳐며 낙조공원에서 변산해수욕장 해변을 따라 송포항까지 버려진 쓰레기와 플라스틱 등 해양폐기물을 수거한다.

전라북도교육청교직원수련원장은 "반려해변 활동은 자연의 수혜를 받고 있는 교직원수련원이 환경을 수호하고 지



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참가자들에게는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지구살리기의 발판이 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종사자 인권교육 진행

남원시는 지난 28일, 시청 강당에서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것으로, 현장에서 장애인을 보살피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단체장 및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장애의 이해, 장애인 학대 이야기, 사례, 신고 피해자 지원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서는 최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과 관련된 시설이나 단체에서 발생이 가능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소개했다.

남원시 김현욱 노인장애인과장은 "최근 장애인 학대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어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강화해 장애인의 인권과 복



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경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개최

고창경찰서(서장 이석현)는 고창군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2023년도 제1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전라북도지부, 고창군청 등 관계기관과 주민자치위원회 등 민간 자문위원으로 혼합 구성된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에 대하여 집중 심의했다.

금번 심의에서는 총 7건의 안전이 상정됐으며 그중 4건이 적합성을 인정받아 가결 처리되었고, 나머지 3건은 부결됐다. 가결된 안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 관리청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 반영토록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농협 무주군지부·구천동,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무주군지부(지부장 권오정),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28일 본격적 영농철을 맞아 칠천면 청량리에 위치한 복숭아 농가를 찾아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 및 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무주군지부와 전북양곡재단, 구천동농협 임직원 및 구천동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 등 20여명은 복숭아 적과 작업과 출하용 상자 집기를 하면서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권오정 지부장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범농협 차원의 영농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박철원 익산시의원, 공무원노조 감사패 받아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이 지난달 28일 익산시의회에서 익산시 공무원의 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박 의원은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공무원 장기재직유가를 확대 시행하고, '익산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여 공무원의 배상책임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해 직무수행 중 업무 과실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공무원들의 복지향상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한창훈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간절한 노사문화 정착은 물론 공무원 조합원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했으며, 이에 박철원 의원은 "이 모든 활동이 공무원 복지향상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박철원 의원은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과 협력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최재기 정읍시의원, 대한민국 평판대상 수상

정읍시의회(의장 고경윤) 최재기 의원이 지난 27일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평판대상 기초·광역의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12회를 맞은 대한민국평판대상은 한국크리에이티브협회와 비롯한 100여개 시민단체 주관으로 국민의 뜻을 대표해 높은 역량과 도덕성,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가기관과 공기업 대표, 문화예술인들을 수상자로 선정하며, 최재기 의원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간 최재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무산 주변 지역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촉구하며, 보행자 중심의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고 역설했고, 농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 촉구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는 등, 주민의 대변자로서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주민에게 힘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재기 의원은 "오직 지역 주민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우선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도, 병원약사회 회원 대상 마약류 취급자 교육

전북도는 지난 27일 그랜드힐스톤 데이비스홀에서 (사)한국의병원약사회 전북지부 회원(마약류관리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자리는 최근 마약류 오남용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마약류의약품의 취급관리를 철저하게 해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마약류의 판매·분할에 관한 사항, △사고의 처리·보고에 관한 사항 △마약류취급 관련업무의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 △마약류 보관·저장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이다.

최영두 보건의료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도내 마약류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철저한 마약류 관리를 통한 마약류 오남용 방지로 도민 건강보호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